

새 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

전국재 소장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들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대형교회들이 미국교회를 벤치마킹한 국적불명의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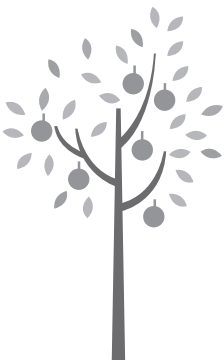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학교의 문제일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교육의 대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이며 교육자인 로저스(C.R. Rogers)는 교육을 주전자에 가득 담겨있는 물을 빈 컵에 채워 넣는 것으로 보는 보수주의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보수주의자들은 학생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만 입을 크게 벌려서 교사(주전자)가 따라주는 지식(물)을 잘 받아먹어야 하며 그래야만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행동주의 교육에 기반을 둔 이러한 비인간화된 교육이 우리나라 교회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교육의 어려움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텍스트는 절대불변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 성경이다. 또한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5~7)라고 명령하셨다.

기독교 교육의 어려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은 정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보니 그 동안 교사들은 배우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더 많이, 더 빨리 가르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뿐이었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가르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학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습은 엄밀히 말하면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습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 일방통행식 교육으로는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열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소규모 사람들과 사귀고 대화 나누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경청한 분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일 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실 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으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조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육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청소년)가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우치고 결단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를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섬기고 축진해 주는 것이다. 성숙한 교사는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동반자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청소년들을 직접 가르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너그러울 수 있으며, 이들이 진리를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인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는 놀이

첫 회에서도 밝혔듯이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놀이가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놀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될 수 없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놀이 하는 자리에서는 놀이자가 주인공이다. 놀이자는 놀이세계에 몰입하여 놀이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를 이룬다. 놀이는 무엇보다도 즐겁다. 놀이는 영·혼·몸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며, 놀이에는 책임이 따른다.

놀이는 교회교육을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학습자)이 내적 동기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시도가 교회 안팎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도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여건들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외면한 채로 무모하게 해 왔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새 부대를 마련해 놓지 않고 현 부대에 새 술을 담은 무모함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현 부대, 즉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틀과 여건과는 전혀 다른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중심의 교육은 결국 거창한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전에 놀이터, 놀이감, 규칙, 그리고 시간을 준비해 두지 않은 채로 놀이를 하는 식의 무지한 행동을 한 격이다.

새 술을 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자

이를 위해 우선 무엇이 새 술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대목은 기독교교육이 목표로 하는 온전한 인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온전한 인간은 지혜(혼), 키(몸), 하나님(영), 사람(대인관계) 이상 네 가지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 통합된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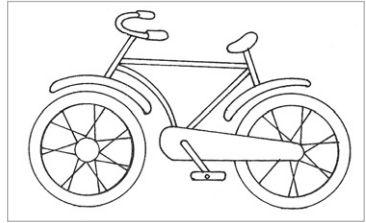
새 술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간이라는 목표만이 아니다. 새 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 마련도 포함한다. 교사는 청소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입식 교육방법과는 달리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그를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 중심의 교육적 방법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중심의 교육과 구별된 청소년(학습자) 중심의 지도력, 프로그램, 교육 방법, 그리고 하드웨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을 담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새 부대인 것이다. 이상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중심의 교회교육은 결국 구호로 그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청소년 중심의 지도력

필자는 청소년 중심의 지도력을 자전거에 비유한다. 자전거 앞바퀴를 지도자, 뒷바퀴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자. 두 바퀴는 함께 가지만 떨어져서 굴러가야 하듯이 지도자와 청소년은 각자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이다. 자전거는 체인과 연결된 뒷바퀴가 굴러가면서 나아가게 되고 손잡이가 달린 앞바퀴가 방향을 잡는다. 이처럼 지도자는 청소년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맘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한다.

지도자는 청소년들보다 미리 앞서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과 코스는 다채롭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결과에 집착하거나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청소년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누군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주어야 전진할 수 있다. 이처럼 지도자와 청소년은 모두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자기개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분산형 프로그램(decentralized program)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집중형(centralized)과 분산형 두 가지가 있다. 집중형 프로그램은 강사 중심(speaker centered)이고 프로그램 중심(program centered)이다. 집중형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예가 중고등학교 수업시간표이다. 학교 수업은 교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과목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처럼 집중형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의 강사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 대집단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을 일방적으로 지도한다. 따라서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권은 거의 없으며 학생의 자발적 참여는 극히 제한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분산형 프로그램은 소집단 지도자 중심(counselor centered)이고 활동 중심(activity centered)이다. 분산형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단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참가자는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된다. 분산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 성숙한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학습자) 중심의 교회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분산형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중형 프로그램의 틀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시도하게 되면 실패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과 경험학습

경쟁을 통한 출세우기식 교육은 비단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경쟁 없는 놀이를 상상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시 147:4) 분이시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신 분이신데 하

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셨겠는가!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라고 안타깝게 외쳤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와 직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충분히 잘 가꾸어서 가장 자기다운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경쟁은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해롭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높이나 게임이 아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여유있게 높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청소년 개개인을 세워 주고 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체험학습은 학습자가 직접 하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경험이다. 협동학습은 각자 특별한 은사와 고유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협동학습에서 집단원들이 집단의 긍정적 역동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그 힘은 엄청나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학습은 모두를 유익하고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교육시대는 지나가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 시대는 학습시대를 넘어서 퍼포먼스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소집단을 지원하는 시설·공간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사람이 건물을 지으나 일단 지어진 건물은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교회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본당 중심이고 특히 교회학교에서 소집단을 위한 공간은 태부족이고 그나마 있는 공간도 긴 장의자가 차지하고 있어서 소집단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회학교는 주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공간 사용이나 건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한다. 작은 방들을 만들어 청소년 중심의 소집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 토요일 휴업이 생기면서 교회마다 주중, 주말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 세상이 청소년들을 먼저 장악하기 전에 교회에서 다양한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이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삶을 나누고,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시간 확충

교회학교 교육이 대부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설교말씀을 듣고 교사가 인도하는 분반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교회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오히려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짧은 시간에 성경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기자재가 동원되고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주일 예배 외에 적어도 반나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 활동이 있어야 교회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교육은 불가능하다. 프로그램

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경쟁하는 게임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즐기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글을 맺으며

필자는 초등학생시절부터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 주일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부서활동을 하느라 교회에서 지냈다.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발표회 준비하느라 교회를 즐기치게 드나들었다. 또한 연극 대본을 쓰고 무대장치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밤들을 꼬박 새웠는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놀이이다. 필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필자가 좌충우돌하면서 깨우친 것들이다. 오늘 우리 교회교육이 방향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의 자발성에 기초한 열정, 즉 놀이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청소년 중심의 지도력, 분산형 프로그램, 체험 및 협동학습, 소집단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공간 확보, 그리고 교육시간을 확장하는 노력 등 모든 관점에 있어서 교회와 부서, 지도자와 교사, 목회자와 온교인이 통합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그들의 과제로 넘겨주어야 한다.

예전의 70, 80년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교회교육을 부활시키고 청소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새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새 술을 담는 작업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